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2026 JULY

Vol.126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메달 146개 획득 '전국3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표지이야기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종목 학생선수단

발행일 2026. 7.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우성희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강희구
편집 주무관 임행훈
편집위원 포항원동초등학교 교감 김도순
김천동신초등학교 수석교사 이지영
가은중학교 교사 이명재
안동중학교 교사 박원래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유리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형제 054)843-8600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godgns2005@gbe.kr ☎ 054)805-3063

기획&특집

교육감이 약속하는 경북교육의 내일 04

경북교육 꾸미기

전통기술교육 70여 년, 08
AI로봇으로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다!
예술의 빛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10
장애인미술단 ‘온그림’
매월 열리는 독도 수업, 현장에서 완성되는 독도사랑 12
소년의 기억, 기록이 되다 14

교육현장 이야기

유, 초, 중, 고 교육현장 이야기 16

경북아이 뽐내기

영양초 유도부, 18
제47회 경상북도교육감기유도대회 입상
풍각중학교, 제53회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쾌거 18
영주제일고 사이클부, 19
제28회 전국사이클대회 종합 1위
문경공업고, 제104회 동아일보기 19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 쾌거

공감 더하기

공간과 인간 20
결승선을 향해 함께 달린 시간 22
창의성에 나이가 있나요? 24
취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26

생생정보 나누기

영주 소백산에 오토캠핑장 하나 더! 28
청렴한 내일 ON 29
안내문 속 쉬운 우리말 30



YouTube

경상북도교육청 맛쿨맛쿨TV



Instagram

경상북도교육청



NAVER 블로그

경상북도교육청



facebook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이 약속하는 경북교육의 내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제19대 경상북도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시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은 더 따뜻한 경북교육을 완성하라는 뜻으로 새기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경북 22개 시·군에서 많은 교육가족을 만났습니다. 안전한 등굣길을 바라는 학부모님, 마음 놓고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 작은학교와 마을의 내일을 걱정하는 주민들,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3기는 AI 시대, 사람 중심 교육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1기에서 기반을 다지고 2기에서 세계교육 표준을 열었다면, 3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수한 정책은 발전시켜 '저마다의 꿈을 살리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AI와 동행하는 미래교육을 열겠습니다. AI가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따뜻한 도구가 되도록 하며, 인문·독서·토론과 질문교육으로 인간의 존엄과 삶의 힘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둘째 기초에서 미래까지 모두를 품는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이주배경 학생, 작은학교 학생도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 학력, 진로·진학, 돌봄과 특수교육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안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가족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안심하고 생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으로 교육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해 작은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으로 교육 지원을 혁신하겠습니다. AI 기반 행정지원과 학교 업무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모든 교직원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길이 닿지 못한 아이는 없는지, 아직 듣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는 없는지 날마다 살피겠습니다. 아이의 처음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12년의 약속을 지켜 따뜻한 경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교육 5대 정책 방향

사람 중심의
시대와 동행하는
교육으로
미래를
열겠습니다.

AI 시대, 사람의 힘을 키우는 교육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AI·디지털 융합교육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태·글로벌 교육

인성, 독서·인문학, 예술·체육, 나라사랑
AI·디지털교육, 창의융합교육
진로교육, 진학지원, 직업교육
생태전환교육, 글로벌교육

기초에서
미래까지
모두를 품는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량을 함양하는 탄탄한 교육과정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 교육과정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경북형 교육과정
배움을 확장하는 수업과 평가

교육과정 지원,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기초학력 보장, 학교급 전환기 교육
경북 특화 학교, 경북 특색 교육과정
학생 주도형 수업, 성장 지원 평가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안전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부담은 비우고 성장을 채우는 학교
평등한 출발을 책임지는 학교
참여와 실천으로 소통하는 학교
위기에서 회복으로 함께 가는 학교

방과후학교, 돌봄, 교육복지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민주시민교육, 교권과 인권
학교폭력, 생활교육, 마음건강, 대안교육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으로
교육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경북 특화 학교
지속 가능한 경북 미래 교육 체제 구축
자율과 참여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배움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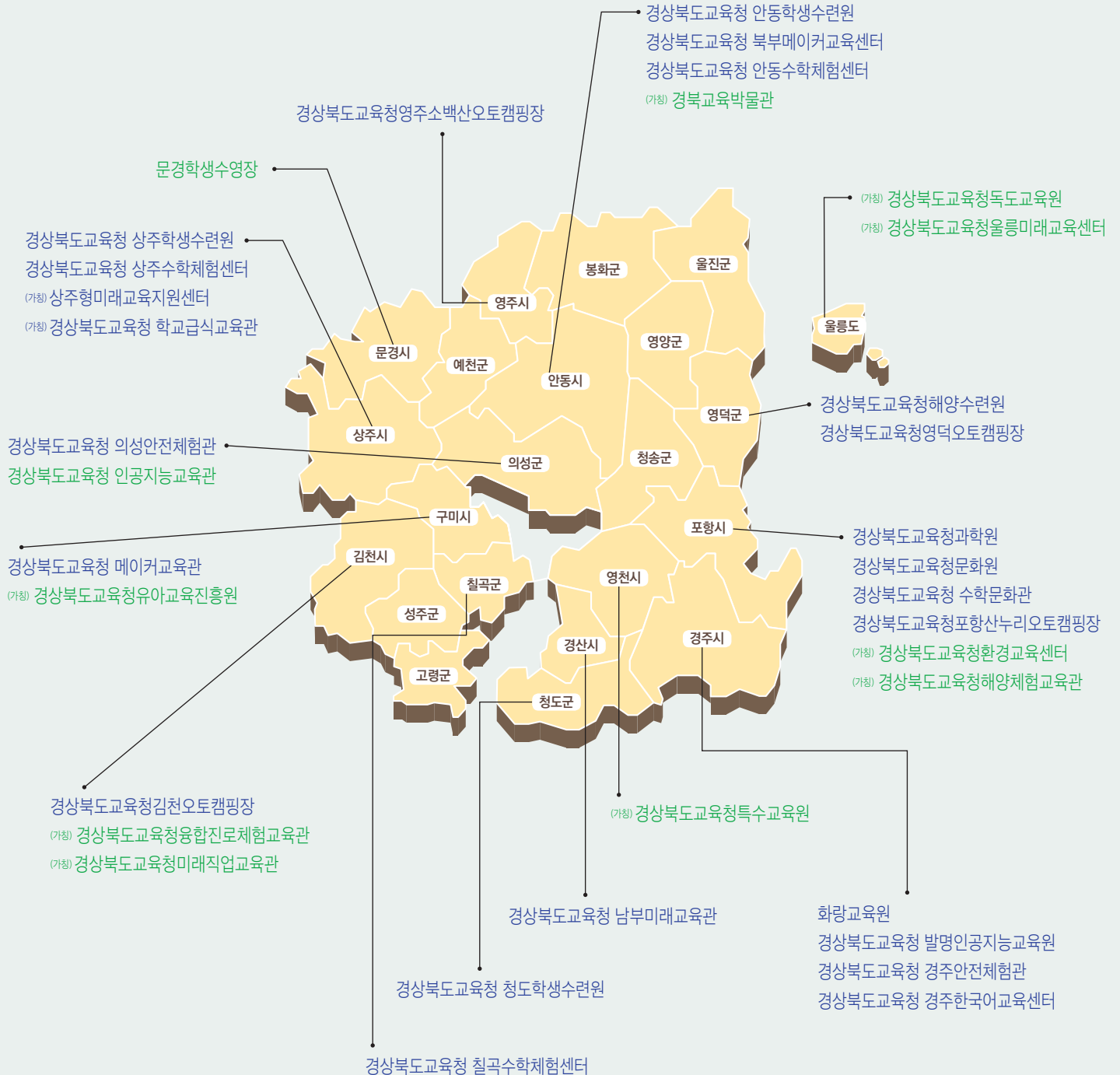
학교 다변화, 농산어촌 특화 학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작은 학교 협력 체제
학교 자율 경영 체제, 학교-가정 소통·협력
지역 교육협력 체제, 평생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으로
교육 지원을
혁신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 혁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공정하고 든든한 공직 환경 조성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감 행정

학교업무정상화, 디지털 기반 지원
미래형 학교 구축, 학교 안전, 보건·급식
인사, 청렴, 교직원 복지, 산업안전보건
소통 및 교육재정, 민원서비스

경상북도교육청 체험 기관 현황



전통기술교육 70여 년, AI로봇으로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다!

‘전국 최고 수준 피지컬AI 기반 로봇교육의 허브!’



문경공업고등학교, 2026년 마이스터고 선정! 2028년 마이스터고 개교!

1952년 개교한 문경공업고등학교(이하 ‘문경공업고’)가 70여 년간 축적한 기계·전기·전자·건축·토목의 전통 제조기술과 피지컬AI 기반 로봇기술을 잇는 새로운 길을 연다. 문경공업고는 지난 2026년 6월 교육부 제20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공모에서 전국 최초 AI로봇 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되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염원과 동문 및 지역사회의 응원,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학교 구성원의 염원 + 교사들의 노력 + 피지컬AI 시대 = AI로봇 마이스터고 선정!

교직원들의 꾸준한 전공실습 및 자격증 취득 지도는 2025년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교’ 선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역량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

하는 학교의 교육력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은 최근 세계 로봇 시장의 고성장, 정부의 국가 AI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의 AI기반 로봇 확충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AI로봇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후, 산업계·대학·연구기관·직업교육 전문가와 교육과정 TF를 구성해 고졸 인재가 담당할 직무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중심 AI를 넘어 인공지능이 센서와 로봇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피지컬 AI’를 활용한 로봇 설계·제작부터 제어·운영·유지보수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과 실습과정을 수차례 협의하여 설계를 완료했다.

교사들의 노력은 교실 밖으로도 이어졌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AI로봇산업협회, (주)뉴로메카, (주)레인보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주), (주)대동로보틱스 등 전국 81개 로봇 관련 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65개의 업무협약을 성공시켜 전문 강사와 시설 활용, 산업중심 교육과정,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등 협력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2028년을 기다리지 않는 AI로봇 교육 시스템 구축 (2027학년도 입학생 교육+취업기회)

마이스터고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2028년을 기다리지 않고, AI로봇 교육 기회와 마이스터고 졸업의 기회를 재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2027학년도 신입생이 문경공업고를 선택할 때 가질 수 있는 강점이자 경쟁력이다.

2026년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이하 '미유고')'에서 전국 65개 지원 학과 중 10개 학과에 최종 선정되어 AI로봇 교육역량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1학년 학생 중 20명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기관과 연계해 3년간 300시간 이상의 AI로봇 전문교육을 받는다.

현장과 함께 키우는 소수정예 AI로봇 영마이스터 양성의 요람

2028년 3월 문을 열 AI로봇 마이스터고는 AI로봇 개발과와 AI로봇제어과를 학과별로 2학급씩 모집한다. 전국에서 남녀 학생 60명을 모집해 학급당 15명의 소수정예 맞춤형 교육을 펼친다. AI로봇개발과는 AI로봇기구 부품을 설계, 가공, 조립 및 설치·유지보수하는 인재를, AI로봇제어과는 AI로봇 제어프로그래밍 및 설치·유지보수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두 학과 모두 현재와 미래에 가장 핵심인 피지컬AI, ROS(Robot Operating System), 로봇시스템통합(SI)을 공통역량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AI로봇캡스톤디자인 과목은 제조용 로봇 및 서비스

로봇을 활용해 기업체 강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통합하는 융합과정으로 구성했다.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동아리 활동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설·제공한다. 이 모든 교육활동의 역량을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마이스터 인증시스템에 누적하여 취업에 활용하고, 학년별·단계별 취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별 최적의 취업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문경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AI로봇 교육의 청사진

문경공업고는 학교 안에 기존 건물 1동을(가칭) AI로봇공동훈련센터'로 전면 리모델링하여 피지컬AI존, 협동로봇존, 농업로봇존, 의료로봇존, 웨어러블로봇존, AI팩토리존 등을 구축해 AI로봇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AI로봇 경진대회 및 창업대회, 지역민 대상 AI 농업로봇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기술인이 되자'는 교훈으로 이어온 기술교육의 전통은 이제 피지컬AI와 로봇을 만나 'AI로봇 인재를 틔우고, 미래를 잇다'는 슬로건으로 미래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손으로 로봇을 만들고 움직이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 그것이 문경공업고가 그리고 있는 미래다.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과 학생·학부모의 기대, 동문과 지역사회의 응원으로 시작된 도전과 그 결과는 대한민국 AI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영마이스터를 키우는 힘찬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예술의 빛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

온그림



행복교육지원과 주무관 박관모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평생의 직업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고용 모델을 정착시켰습니다. 학교 교육이 졸업으로 단절되지 않고 미래의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재능 발굴 - 직업훈련·채용 - 현장 적응 및 경력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 '온그림'의 감동적인 여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소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첫걸음: 전국 최초 장애인미술단 창단 기획 및 업무협약(MOU) 체결
- 공공기관 주도의 새로운 장애인 예술 고용 패러다임 -**

특수교육 현장의 오랜 과제였던 '졸업 이후의 진로 및 고용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앞장섰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본청 응비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장애인 미술단 창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도약의 준비: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형 직업훈련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경북 소재 학교 졸업 발달장애인 중 미술적 재능을 뛰어난 4명이 정식 단원으로 뽑혔습니다. 단원들은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직무 적응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통해 단단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6년 3월 21일

공식 출범: 장애인미술단 '온그림' 창단식 성황리 개최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강당에서 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의 장애인미술단 '온그림'이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특히 이날 창단식 직후에는 단원들이 인접한 해마루중학교 외벽과 해마루초등학교 계단에 직접 벽화를 그리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단원들은 예술 직업인으로서의 시작을 세상에 알리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호응을 선사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든든한 초석이 된 '온울림 앙상블'

경상북도교육청이 과감하게 전국 최초의 장애인미술단을 기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4년 창단한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의 대성공이 있었습니다. 온울림 앙상블은 2025년 한 해 동안 도내 학교 및 기관을 순회하며 100여 회의 장애 인식 개선 공연을 성공적으로 펼쳐, '예술 창작이 곧 훌륭한 직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프로의 시작: 정식 근로계약 및 전용 작업실 입주 -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 -

모든 직업 훈련 과정을 마친 4명의 단원들은 4월 1일부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정식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당한 직업 예술가로 거듭났습니다. 단원들은 구미 특수교육지원센터 (형남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온그림 전용 작업실로 매일 출근하며 창작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채용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장애 학생 취업 지원관'을 배치하여 단원들의 초기 근무 적응을 돕고 작업 스타일을 분석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전시 및 프로젝트 이력 정리 등 생애 단계별 경력 관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민간 기관이나 타 공공기관으로 확장·이직할 수 있는 '경력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결실의 무대: 첫 합동 전시회 '루미나' 참가

창단 이후 전용 작업실에서 열정을 쏟아온 온그림 미술단은 마침내 전문 예술인으로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온그림 단원 4명은 지역 발달장애인 작가 6명과 협력하여 총 10명이 참여하는 화합의 전시회 '루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전시 일정: 2026. 5. 12.(화) ~ 6. 13.(토)

장 소: 구미 '행복한화가 갤러리카페'

부 제: "색으로 빛을 피워낸 삶의 향기 이야기"

온그림 단원들의 완성 작품들은 향후 도내 교육기관 순회 전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접점을 넓힐 예정이며, 학교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작업에도 참여하여 일상 속 자연스러운 장애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매월 열리는 독도 수업, 현장에서 완성되는 독도 사랑



학생생활과 장학사 정은하

매월만나고, 현장에서 배우는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이자, 우리 역사와 주권, 자연과 삶의 가치를 함께 품고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섬의 이름과 위치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자연,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독도교육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월간 독도」 - 교실 안으로 들어온 독도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보급하는 월별 독도교육 자료 꾸러미 「월간 독도」는 학교 현장에서 독도교육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료입니다. 교원 독도탐사단의 현장 영상과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독도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상 자료와 교수·학습자료, 참여형 퀴즈, 카드뉴스 등 학교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월별로 제공합니다.



주제 구성이 풍부합니다. 독도의 위치, 독도 바위, 독도에 사는 사람들,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인문 환경, 독도 수호대,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인가,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등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주제를 만나며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형식도 다채롭습니다.

독도 바위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AR 콘텐츠는 학생들이 독도의 자연환경을 보다 실감 나게 이해하도록 돕고,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가상 통화 콘텐츠는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친근하고 몰입감 있게 전달해 줍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독도를 읽고 듣는 데서 나아가, 마치 직접 경험하듯 배우며 독도를 한층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활용도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월별 핵심 내용을 담은 영상 자료와 함께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본편과 심화편으로 나누어 학교급과 학생 수준, 교실 상황에 맞게 선택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수정·편집용 PPT를 함께 제공해 교사가 수업 목적과 학급 특성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장 친화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여기에 메타버스 기반 방탈출 형식의 퀴즈와 카드뉴스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학교 안팎에서 독도교육이 보다 친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 - 탐방을 살아있는 배움으로

「월간 독도」가 학교 안에서 독도를 꾸준히 배우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체험형 워크북 「우리 독도」는 그 배움을 현장 체험과 연결해 더 깊이 있는 독도교육으로 확장해 주는 자료입니다.

「우리 독도」 워크북은 아래와 같이 총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장 '비밀의 섬, 독도' - 독도의 자연환경과 과학적 특성 탐구
- 2장 '영웅이 지켜온 섬, 독도' - 독도 수호의 역사와 인물 이해
- 3장 '바람과 파도의 조각, 울릉도와 독도' - 울릉도와 독도의 지형·생태 탐색
- 4장 '눈앞에 펼쳐진 땅, 독도' - 독도 입도 시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체험 활동

학생들은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관찰하고 활동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독도를 더 생생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배움과 깊이 있는 체험이 만날 때

독도교육은 '꾸준한 배움'과 '깊이 있는 체험'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월간 독도」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독도를 매달 가까이 만나도록 돕고, 「우리 독도」는 그 배움을 현장 속 경험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실에서 배우고, 탐방으로 확인하고, 다시 기록과 생각으로 이어 가는 이러한 흐름은 학생들이 독도를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땅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독도교육이 학교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학생들은 독도를 더 이상 멀리 있는 섬으로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는 자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깊이 경험할수록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배움의 공간이며,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소중히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월간 독도」와 「우리 독도」는 이러한 배움을 보다 가까이, 보다 꾸준히, 그리고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교육자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중, 경주여중 학생들 전쟁 지원 사진(출처 경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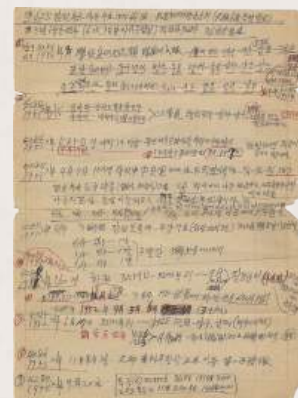
소년의 기억, 기록이 되다.

학도병 기록물 수집·전시와 명예회복

총무과 기록연구사 정현규

경북교육청의 학도병 선양과 기억 교육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할 만큼 학도병과 관련한 많은 선양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6월마다 학도병 추념식과 호국길 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당신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 학도병의 이야기를 모은 도서 발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경북 도민 전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기록



학도병
전쟁 당시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기록을 마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중요한 정보와 기록이 부족했다. 마침 중요기록물 중 하나인 학적부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경주고에서 끝까지 작성되지 않은 다량의 학적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학교 담당자에게 졸업까지 작성되지 못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하였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학적부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해야 할 공간이 전쟁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와 놀고 공부를 배워야 할 어린 학생들은 전쟁터로 간 슬픈 현실이, 세상이 아이들을 아이처럼 대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결국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교육청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기록연구사로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했다. 그들의 기록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로 인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도병들의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생존 학도병들의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며 전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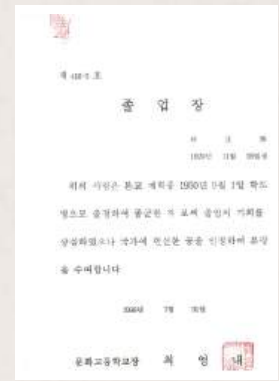
경주공업중 불국사 수학여행



구술 채록



경주공업중 졸업증서 (전쟁중 수여)



명예졸업장

흔어진 기록과 목소리를 모아 기억으로

기록물 수집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학교와 동창회에서 보유한 기록물 중 학도병 관련 기록물을 찾는 것이다. 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학적부, 학교에서 일괄로 작성한 입영자 학적부, 전쟁에 참전하면서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발급한 명예졸업장, 전쟁 당시 학교 사진, 전쟁 당시 학생들의 물자 지원 사진 등 현재까지 다양한 기록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학도병 또는 학도병 유족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이다. 학도병 당시의 사진이나 문서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하게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교육청에서 잘 보관하고 기증자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수집 또는 대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학도병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학도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고, 누군가는 옆에서 죽은 친구의 눈을 감겨주었으며, 누군가는 압록강의 물을 떠서 돌아왔다.

기록에서 전시로, 학도병 기억의 공유

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전시는 현재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https://cem.gbe.kr>)에서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에 학도병 관련 메뉴를 마련하여 기록물, 인터뷰

영상, 다큐멘터리, 교육청 사업 및 추모비 소개 등 학도병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6월 한 달간 교육청 1층 상설 갤러리에서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를 운영하였다. 특히 유해 발굴감식단과 협력하여 유해발굴 당시 발견된 유품도 함께 전시를 하였다.

수집한 기록으로 되찾은 학도병의 이름

현재까지 300여 점의 기록물을 수집 및 대여중에 있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생존 학도병 30여 분을 확인했다. 이 중 21분의 구술을 채록하였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찾고 구술을 채록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던 학도병 분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다. 수집한 기록물과 정보를 토대로 2025년 고(故)최영수 님의 명예회복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참전 사실 확인 통보서가 발급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함과 동시에 그 기록물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도병 분들의 명예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리고 현재 교육청 최초로 전 학적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전 사실이 기재된 모든 분들을 찾아낼 예정이다. 학적부는 유공 자격 취득에 가장 중요한 공적 기록이므로, 향후 더 많은 분들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CHOOL NEWS

선율로 잇는 동심, 유·초 동화음악회

유·초가 함께 즐긴 ‘알라딘과 요술램프’ 3중주

영주남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은숙)은 5월 18일(월), 유치원 놀이실에서 유치원 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을 깨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찾아오는 동화음악회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관람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유아들이 친숙한 명작 동화를 아름다운 라이브 연주와 함께 입체적으로 감상하며, 풍부한 예술적 감성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공연은 풍성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3중주(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라이브 연주로 진행되었다. 음악회에 참여한 유아는 “눈앞에서 진짜 악기 소리가 들리고 알라딘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어요”라며 즐거워했고 참여한 교사는 “아이들이 눈앞에서 직접 연주되는 3중주 음악을 들으며 동화에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제동행-달콤한 소통, 두쫘꾸 만들기

상주동부초등학교(교장 김주홍)는 2026년 5월 15일 (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두쫘꾸 만들기’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제간의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2,3학년과 4,5,6학년으로 구분하여 외부강사님의

설명아래 버터와 마시멜로를 녹인 후 카카오가루를 섞어서 카다이프 등 속재료를 준비하여 둥글게 빚어 각 개인의 모든 정성을 들여 두쫘꾸를 만들었다.

4학년 차OO학생은 “집에 가서 자랑해야지.”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나 정성껏 만들고 잘 만들어서 깜짝 놀랐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다.

SCHOOL NEWS

매전중학교, '먹살 대신 목살' 학교폭력 ZERO 챌린지 실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팔을 건어붙였다. 청도 **매전중학교**(교장 김기빈)는 5월 6일, 전교생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먹살 대신 목살' 행사를 개최하며 학교폭력 ZERO를 향한 특별한 발걸음을 뗐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이벤트를 넘어, 학생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 과정을 총괄한 류OO(3학년) 학생회장은 "행사를 준비하며 부딪히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기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법을 배웠다."며 "작은 배려가 큰 갈등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매전중학교(교장 김기빈)는 "서로의 입속에 음식을 넣어주며 환하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 학교폭력이 설 자리는 없었다."고 격려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소통의 온기가 학교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미래농업고 창업동아리, 상주 왕산시장서 지역 주민과 만나다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교장 김현태)는 학교 내 창업 동아리(플랜토리 등)가 상주 왕산시장에서 열린 '夜놀장' 플리마켓에 참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플리마켓 참가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농산물 및 체험상품을 선보이며 창업 및 실전 판매 경험을 쌓았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교류 및 한국

미래농업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김현태 교장은 "이번 플리마켓 참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창업 경험이 되었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농업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초

영양초 유도부 제47회 경상북도교육감기 유도대회 입상

영양초등학교(교장 김대신) 유도부는 지난 5월 9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경상북도교육감기유도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영양초 유도부는 개인전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전 체급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단체전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더했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유도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선수와 관계자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대회는 선수부와 클럽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영양초 학생들은 5~6학년은 선수부, 4학년은 클럽부에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매 경기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다.

김대신 교장은 “학생들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량을 키우고 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승패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에서 유도부의 성장과 단합된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성과 체력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풍각중

풍각중학교, '제53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종합우승 쾌거

청도 풍각중학교(교장 엄숙영)는 5월 7일 목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개최된 제53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강호들을 상대로 거둔 값진 결과로, 풍각중학교 태권도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전문지도자 강구환 교사의 체계적인 기술 지도와 감독교사 장세명의 헌신적인 선수단 관리,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선수들은 평소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전 대비 전략을 꾸준히 병행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숙영 교장은 “이번 종합우승은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도진의 헌신,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응원이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영주제일고

영주제일고 사이클부 종합 1위(금4, 동1)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28회 전국사이클대회

경북 영주제일고등학교(교장 최강호) 사이클부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28회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당당히 종합 1위(종합 우승)를 차지했다.

특히 3학년 윤석현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1km 독주 1위와 경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김국영(3학년), 성윤건(1학년)과 호흡을 맞춘 단체스프린트에서도 1위에 오르며 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윤석현은 이번 대회 활약을 인정받아 대회 최고 영예인 ‘최우수 선수상(MVP)’까지 거머쥐었다.

이외에도 중거리 간판인 3학년 김세원 선수가 체외경기 1위로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3학년 김국영 선수가 스프린트 3위로 동메달을 보태며 팀의 종합 우승에 힘을 실었다.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윤석현 선수는 “동료들과 함께 이뤄낸 종합 우승이라 더욱 뜻깊다.”며 “항상 믿고 지도해 주신 감독님, 코치님과 아낌없이 지원해 준 학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주제일고등학교 사이클부는 이번 우승으로 명실상부한 사이클 명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향후 열릴 전국체육대회 등 다음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할 예정이다.



문경공업고

문경공업고,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 쾌거

- 단체전 1위, 개인복식 2위, 개인단식 1위 및 2위 수상의 영광 누리 -

문경공업고등학교(교장 박삼용) 소프트테니스부가 제104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비롯해 개인복식 준우승, 개인단식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렸으며, 문경공업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는 2학년 박울, 백종철, 오재욱, 1학년 김건울, 김도연, 박태영, 윤시후, 장재윤, 전석범 등 9명이 신영운 감독과 윤장원 코치의 지도하에 출전했다.

문경공업고는 예선 리그전에서 인천고와 충남기계공고를 각각 3대 0으로 완파하였고, 이어 4강 토너먼트에서는 안성고를 3대 1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음성고를 상대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1번 복식에서 박울·윤시후 조가 승리를 거두었고, 2번 단식에서는 박태영이 승리하며 우위를 점했다. 이후 3번 복식에서 패배하였고, 4번 단식에서는 박태영이 세트스코어 1대 3으로 뒤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전해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 접전 끝에 8대 6 승리를 거두며 팀 우승을 확정지었다.



공간과 인간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도촌초등학교 교사 김동현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

오랫동안 학교에 던져진 이 뼈아픈 조소는, 확실성에 갇혀 있는 학교라는 공간의 현실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져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술가와 관객이 숨죽여 감정을 교류하는 오페라 극장처럼, 낯설고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광장처럼, 둥글게 모여 앉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공유하는 모닥불가처럼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볼까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실의 모습은 네모 반듯한 물리적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친구의 뒷모습과 칠판을 바라보는 일방적이고 단절된 구조 속에서 “친구들과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성장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학교 건물 자체를 당장 허물고 새로 짓거나, 교실의 네모난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어떤 작은 변화를 주면 우리의 관계와 일상이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거창한 건축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정성껏 다듬고 가꾸어 낸 우리 학교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 자연의 품을 내어주는 숲속 놀이터, 학교 텃밭, 장 담그기 공간

학교의 작은 나무숲에 자리 잡은 ‘숲속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플라스틱과 우레탄으로 덮인 흔한 놀이터와 달리, 흙을 밟고 나무 냄새를 맡으며 뛰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햇빛, 계절에 따른 나뭇잎의 변화를 보고 있자면, 쉴 새 없이 손가락을 넘겨야 하는 유튜브 쇼츠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학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비닐하우스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학교 텃밭은 아이들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스승은 자연임을 깨닫는 곳입니다. 고마 농부가 되어 상추, 가지, 토마토 등을 키워내며, 밥상 위의 작물에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깃들어 있는지 깨닫습니다. “힘든 줄 몰랐어요. 급식 안 남길 거예요.”라는 말속에는 자연과 생명을 향한 짙은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학교 장 담그기 공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주를 나르고, 장독대에 숯을 띄우며 묵묵하고 성실함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버튼 하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역행하며, ‘완성됨’이라는 것은 한 번의 찰나 같은 순간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 일상 속 아름다움을 사유하는 작은 미술관, 시 정원

바쁘게 흘러가는 학교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북도 공간을 활용한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은 지역 미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걸려 있는 우리 학교의 갤러리입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도 많지만, 문득 많은 그림 중 그날의 나에게 유독 마음의 결을 당기는 작품을 발견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단순한 북도가 아닌 일상 속 아름다움을 깊게 사유하는 다정한 휴식처가 됩니다. 도촌 시정원은 맛있게 학교 화단을 문학 공간으로 바꾼 곳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몽클한 시구를 입안에 굴려보며,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시 한 편을 외우고 있는 일. 그것이야말로 시 정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낭만적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우리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교실

학교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칠판만을 향한 네모난 구조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교실 뒤를 개조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아늑한 다락방 같은 집 모양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최근 개축공사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별관 공간들에는 뽀얀 팻말 대신,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은 ‘소리마루’로, 도서관은 ‘꿈나래 꿈타래 도서관’으로 직접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딱딱한 공간에 사람과 같은 세 글자의 이름을 붙였던 선조들의 지혜처럼 아이들도 공간과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별한 공간들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학교의 뼈대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변화시켜온 일상의 공간들입니다.

위 공간들은 숲과 텃밭에서 자연과의 공존을 깨닫고, 미술관과 정원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사유하며, 스스로 이름 붙인 교실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식보다 단단한 지혜를 품으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결승선을 향해 함께 달린 시간

제 28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포항명도학교 교사 배진우



4월의 마지막 주, 안동종합운동장에는 유난히 힘찬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출발선 앞에 선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은 자신감이었다.

포항명도학교 학생들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28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경북 특수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떠올리면 메달의 색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학생들이 보여준 성장의 순간들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기록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 답답해하기도 했고, 반복되는 훈련에 지쳐 힘들어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겨울방학에도 운동장과 훈련장을 오가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섰고, 친구들은 서로의 기록을 함께 기뻐하며 응원했다.

육상 종목에 출전한 백이령 학생은 학생부 1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권용현 학생은 400m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재원 학생은 포환던지기과 창던지기에서 모두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에서도 김현정 학생과 박지훈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동안의 노력을 증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일반부 4×100m 계주 경기였다. 신동민, 정동환, 황성빈, 팽정민 학생은 수없이 반복한 배턴 터치 연습을 떠올리며 트랙 위에 섰다. 한 사람의 실수가 팀 전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에 학생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믿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학생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그들의 금메달은 포항시 선수단의 2년 연속 종합우승에도 힘을 보탰다.

대회가 끝난 뒤 한 학생은 “연습할 때는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이번 대회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번 대회는 메달의 개수를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결승선을 향해 달린 것은 선수들이었지만, 그 길 위에는 친구들의 응원과 가족의 격려, 그리고 묵묵히 함께한 선생님들의 믿음이 함께 있었다.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안동에서의 이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메달은 목에 걸렸지만, 진짜 성장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남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들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한 의미로 남았다. 경기 당일 학생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은 이틀 동안의 결과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생마다 장애 특성과 체력 수준이 달라 같은 훈련도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했고, 작은 부상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기록 향상보다 먼저 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했기에 때로는 훈련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했다.

부족한 부분을 반복 연습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다.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컨디션을 살피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대회 출전을 위한 행정적인 준비까지 병행해야 했던 교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힘들었던 순간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자신감 없이 출발선에 서던 학생이 서로 기록 향상을 이야기하고, 훈련을 힘들어하던 학생이 먼저 운동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교사들은 작은 감동을 느꼈다. 특히 계주 종목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실수를 탓하기보다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메달보다 더 값진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교사들은 “훈련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록이 쉽게 향상되지 않아 학생들과 함께 답답해진 적도 많았지만, 서로를 응원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교사들의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메달보다 학생들의 표정이었다. 자신이 해냈다는 뿌듯함과 친구와 함께 이뤄낸 기쁨이 담긴 그 미소는 어떤 기록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운동장을 수없이 돌며 흘린 땀방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견뎌낸 인내, 친구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시상식장에서 환하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사들은 그동안의 걱정과 고생이 모두 잊힐 만큼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였고,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메달은 단순한 입상 결과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장의 기록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창의성에 나이가 있나요?

심리학자, Form심리연구소 소장, 대구한의대학교 외래교수 **이인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창의성에 나이가 있나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창의성 발휘! 딱 좋은 나이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구요? 맞습니다. 대중가요를 살짝 개사했습니다. 창의성에 나이가 있을까요? 창의성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청소년! 이 물음에 학부모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학부모님,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창의성이 필요해요’라고 답을 합니다. 어쩌면 창의성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창의성은 나이가 들면 감소해서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창의적인 산출물이 낮아지는 이유를 신체적 활력 감소, 감각 기능의 퇴화, 질병, 관심사의 변화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기’를 나이로 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건강지표로 규정해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심사의 변화 이외에 신체적 활력 감소, 감각 기능의 퇴화, 질병으로 창의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몇가지를 노력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독을 즐겨라

자녀들이 독립하여 집을 떠나는 시기에 부모가 상실감과 슬픔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자녀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대학교에서 ‘학부모회’를 만들고,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학부모 성적열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학부모가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빈둥지”를 미리 준비하고 고독을 즐겨야 합니다.

깊은 탐구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라 ✏️

창의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성찰하며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서도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왜,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고 왜 그 노래를 좋아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10~20대 초반은 '회고절정 (Reminiscence bump)'으로 음악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고 자신의 취향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라 ✏️

나의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해 본다면 나의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는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 놓고 자녀와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부모 버전, 선배 버전, 친구 버전 등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저의 아이에게 "어떤 버전으로 답해 줄까"라고 묻습니다. 부모 버전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절대 '부모 버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명상시간을 만들어라 ✏️

명상이라면 가부좌를 연상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명상과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알파파를 만들어 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 만으로도 만들 수 있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낮추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알파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성을 위해서 멍때리기를 연습하고 자녀가 멍때리고 있으면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창의성이 새싹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젠 글을 그만 읽고 멍때리기를 시작하세요. 잠시라도.

머리를 비우셨다면, 이제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 볼까요?

학부모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발급해 보셨나요?

학부모들의 기록은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기로 된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방법:** 출신학교에 가거나 교육청, 시청, 행정복지센터에서 FAX로 받을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성적, 담임선생님의 평가, 장래희망 등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출신학교로 직접 가세요.

만약 자신이 없다면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저는요? 당연히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했습니다.

* **무엇을 볼까요?**

- 선생님의 평가를 보면서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 장래희망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 자신이 있으시면 자녀의 성적도 비교해 보세요.





취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고용노동부 인니어스 구미지사 **김진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5세 ~ 69세 연령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조리와 학생들은 호텔조리, 카페, 베이커리 등 외식업 분야 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며, 피부미용과 학생들은 피부관리실, 에스테틱샵, 화장품 관련 분야, 뷰티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청년 만 15세 이상)

- ✓ 진로상담 ✓ 취업연계 ✓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 면접 코칭
- ✓ 직업훈련 연계 ✓ 취업지원수당 등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 성공을 돕습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① **1:1 취업상담** 전담 상담사가 학생 개인의 적성, 희망직무, 전공을 고려하여 진로 및 취업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기업에서 원하는 이력서 작성 방법과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면접 준비 지원** 실전 모의면접, 면접 태도, 답변 방법 등을 연습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지역 우수기업 및 청년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학생에게 맞는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 ⑤ **직업훈련 연계**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참여수당 지원** 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3. 참여 대상은?

- ✓ **1유형: 구직자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중 중위소득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 **2유형: 구직자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 개인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참여 절차

- 온라인 : 고용24 신청서 접수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방문접수

5. 참여하면 좋은 점

- 막막한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 가능
- 전문 상담사의 지속적인 관리
-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 향상
- 취업 정보 및 기업 매칭 지원
- 졸업 후 빠른 사회 진출 도움

6. 이런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인 학생
- 이력서 작성이 어려운 학생
- 면접이 걱정되는 학생
-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정보를 알고 싶은 학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취업 준비의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하세요!”

자격요건 알아볼까요?

I 유형	II 유형
만 15세~69세 이하	만 15세~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지원 : 진로상담, 취업연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면접 코칭, 직업훈련 연계, 취업지원수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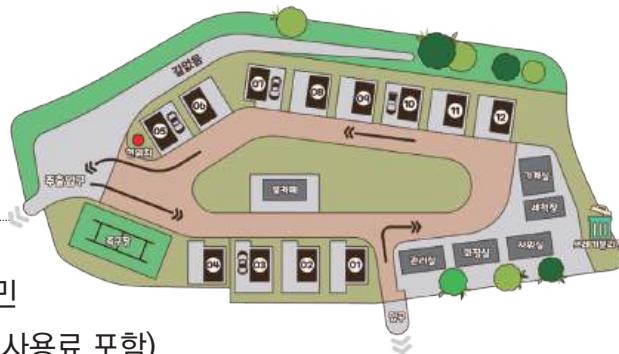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에 새로운 쉼터가 더해집니다. 포항산누리, 김천, 영덕 오토캠핑장에 이어 2026년 3월, 영주소백산오토캠핑장이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옛 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 자리에 조성된 영주소백산오토캠핑장은 소백산 자락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아담한 캠핑 공간입니다. 12면의 데크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경북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를 캠핑으로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소백산오토캠핑장

- 위 치: 경북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354
(구)부석초 남대분교
- 규모: 12면(데크 12)
- 수용인원: 최대 48명 수용



이용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경북도민

사 용 료 2만 원(1면/1일,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예약 방법

- 경상북도교육청 영주소백산오토캠핑장 누리집
(<https://www.gbe.kr/sobaeksancamping/main.do>)

-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
(<https://www.gbe.kr/edushare/main.do>)



청렴한 내일 ON!

전기 스위치 하나에도 청렴이 담겨 있습니다.
무심코 켜 둔 냉방기와 조명도 모두의 예산과 연결됩니다.
모두의 자산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 일상 속 청렴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청렴 포인트

공공자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모두의 자산을 내 것처럼, 청렴한 경북교육을 함께 만듭니다.

우리말 바르게 쓰기

가정통신문, 더 쉽게 더 다정하게



매주 가정으로 발송되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안내문! 혹시 무심코 쓴 딱딱한 행정 용어나 한자어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았을까요? 익숙하게 쓰던 표현들을 조금만 더 쉽고 다정한 우리말로 바꿔 보세요. 작은 단어 하나의 변화가 학교와 가정을 더욱 가깝게 연결합니다.

딱딱한 표현

해당 학생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석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쉬운 표현

해당 학생은 꼭 참석해
주세요.

정해진 날짜까지 내 주세요.

내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미래 세대에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탄소중립 실천 공모전 수상작
웹툰 - 초등 최우수상 / 호명초등학교 황다영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소통망(SNS)에 놀러오세요!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